

서호인의 '좌측담장'



다양한 사건·사고와 이상한 책임들

불법 도박, 음주 운전, 폭행, 승부 조작, 브로커, 금지 약물, 성매매, 성폭행……. 모두 신문 사회면에서 범죄를 다룰 때 등장할 법한 단어들이지만 이들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야구 기사에 등장했다.

2015년 당시 압도적인 성적을 구가하던 삼성 라이온즈 투수 몇 명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았다. 뒤이은 한국시리즈의 엔트리에 그들은 제외되었고, 소속 팀은 우승을 놓쳤으며 사후 징계도 받았지만 안지만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이번 시즌까지 말짱하게 활약했다. 임창용은 고향인 KIA 타이거즈로 돌아와 출장 금지 징계를 소화한 후 팀의 불펜 투수로 뛰며 우승까지 맛봤다. 윤성환은 FA 재취득 자격을 얻었으며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 핵심 불펜으로 뛰며 자신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

음주 운전은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LG 트윈스의 윤지웅은 새벽 6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팀 레전드의 은퇴 회식을 핑계 댔지만 이내 그마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한국

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에릭 테임즈 역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나 소속 팀은 그 내용을 감독에게 숨기고 출전을 강행하려 하기도 했다. 테임즈에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대단한 활약을 펼친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사고 후 동승자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치졸한 치밀함까지 보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비자 발급이 미뤄지면서 수년을 통째로 날려야 했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 적발만 세 번째였다.

운동선수에게 위계에 의한 폭행은 아주 오래 각인되어 온 악습 중의 악습일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규모도 큰 야구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신인왕인 포스트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 준 히어로즈의 안우진은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야구 배트와 공으로 때렸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후 인터뷰에서 '야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팀의 대선배 이택근 또한 최근 후배를 폭행했다는 문우람의 폭로가 있었다. 그에 대한 사과에서 이택근은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말을 몇

번인다.

성 문제에 대해서는 야구 선수들의 젠더 의식 자체가 의심스럽다. MVP 출신 거포 김성현은 백주 대낮에 음란 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선수 생명이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몇몇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룬살롱, 안마방 등지에서 야구 선수를 목격했다는 글이 심심치않게 올라온다. 문우람의 폭로에서도 안마방은 등장한다. 같은 팀의 투·포수였던 박동원·조상우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 중이다.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흔든다는 승부조작은 또 어떠한가. 앞에 말한 문제들이 폭로된 문우람의 기자회견은 승부조작 브로커로 몰린 그가 동료 이태양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한 자리였다. 그의 호소와는 달리 법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불과 6년 전, LG 트윈스의 차세대 에이스로 각광받던 박현준 또한 승부 조작 혐의로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은 없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금지 약물은 야구계가 나서서 행위의 심각성을 지우는 모양새다. 약물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을 때 적발된 김재환은 징계 후 몇 년 사이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가 되었고 급기야 이번 시즌 MVP를 수상했다. 기자들의 투표, 선수단의 투표, 은퇴 선수의 투표 모두 이 외야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야구로 문제를 일으켜 야구로 은혜를 갚는, 이 이상한 방식의 결초보은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논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놀랄게도 이 모든 일은 최근 5년 내외에 벌어진 것들이다. 5년 동안 프로 야구 관중은 꾸준히 늘었고, 올해도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았으며 더 많은 사람이 티브이나 휴대전화로 야구를 접한다. 정운찬 총재는 '클린 베이스볼'을 KBO의 모토로 내걸었지만, 어디 서부터 깨닫져야 할지 감도 못 잡은 듯하다. 큰 권한과 인기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야구를 잘하는 것과 프로 선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문제는 야구를 하는 사람들만 모른다는 것인데 이게 진짜 문제일지도 모른다.

(시인)

의료칼럼

겨울철 허리 건강



박지한 우리들병원 원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과 도로 곳곳에 빙판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낙상이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노인층에서 환자가 유난히 많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이면 평소보다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렇게 낙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환자를 살펴보면 가볍게 뺨 한자부터 디스크가 터진 경우, 뼈가 부러진 경우 등 증상이 다양하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질환은 척추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로 의학적으로는 '척추 압박 골절'이라

고 한다.

이러한 '척추 압박 골절'은 낙상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심한 운동이나 갑작스런 충격을 받았을 때, 창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가벼운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어린이를 업을 때, 거실이나 욕실에서 미끄러졌을 때, 골다공증 등의 원인으로 오는 압박 골절 등을 들 수 있다.

척추는 '대들보'처럼 우리 몸을 받쳐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척추 뼈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약간의 움직임이나 체중에도 척추에 부담이 되고, 결국 심한 통증이 생겨 거동이 불편해진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렴, 욕창 등이 있다. 또 시기를 놓쳐 치료가 늦어질 경우 점점 척추가 굽게 되는 후만증이 발생해 방치하면 만성 요통으로 남게 된다.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낙상 주의' 경고문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지만 이

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다. 삼대가 함께 지내는 집이면 물다리 목거노인이나 노부부가 사는 집은 대체로 집안을 어둡게 해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한데다 조광까지 어두우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집 안의 전기 줄이나 문지방을 없애는 것이다.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문지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문지방이 있는데 어린 시절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가락을 찌른 경험 정도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화장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타일 자체를 미끄럽지 않게 제품으로 까는 게 좋지만 당장 실행하기 힘들다면 환기를 잘 시켜서 물기를 없애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골 감소를 예방하고, 골 밀도를 증진시키는 골다공증 치료이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많

이 생긴다는 뜻으로,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지는 병이다. 여성은 50세 전후 폐경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어 폐경 후 3-5년 내에 골 밀도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골 밀도 검사를 해 간단하게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받은 후에는 골 소실을 방지해 현재 골량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주 햇볕을 쬐는 등 일광욕을 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흡연, 카페인,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청량 음료 등의 가공식품은 피하고 저염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사와 상의 후 여러 약물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가벼운 통증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는 것이다. 또한 척추 부위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척추 성형술(척추뼈 내에 특수 제작된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방법)이라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기고

건축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배운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자기 집을 짓는 꿈을 꾸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설계, 재료, 공법, 시공자 선정 등 건축 과정이 복잡하다. "집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는 말도 그만큼 집 짓기의 고단함을 표현한 것일 게다. 친구가 요즘 핫(Hot)한 주거 트렌드인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를 지어 초대박이 간 적이 있다. 그 편 광주가 한참 35도를 웃도는 폭염 상태였는데 그 집은 25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내 온도와 쾌적함에 적잖이 놀랐다.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과 기밀성을 강화시켜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수익과 환경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미래형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친구도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제안받았을 때는 다

소적경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생소한 자체나 공법을 선택 적용하기가 두려웠고, 무엇보다 건축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초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냉난방비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앞으로 집을 지을 사람이라면 첨단 단열 공법의 패시브 하우스를 적극 권하고 싶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0.65도 더 오를 경우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방안이 전 세계의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야흐로 각 나라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약은 세계 195개국 나라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 혁명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량치 대비 37%를 감축하여야 한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여야 한다. 국토

교통부는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2017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대상은 비주거 500㎡ 이상, 주거 30세대 이상의 신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인-허가시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분야의 설계 기준 적용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건축사, 건축주 및 자치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설계 기간 등도 고려해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녹색 건축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15%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연간 관광객 1천만 명이 몰려드는 태양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세계 최초로 도

시내 모든 신축·개보수 건물에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 온수 공급량의 60% 이상을 태양 에너지로 충당토록 하는 '태양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청사 등 공공기관에는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이, 가정에는 온수를 만드는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고 있다. 태양열 조례 제정으로 가정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예전보다 30% 이상 줄었고, 병원 등 공공기관은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조건을 잘 활용한 최고의 환경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건축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프란츠 알츠는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시도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자연을 통한 생태적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건축에 반영해야 할 때다. 생태적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행정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광주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제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광주 1도 낮추기' 정책의 성공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속속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속수무책 광주시

하루가 다르게 광주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형식을 빌려 기존 동네 모습과 판판인 고층 아파트 일색으로 잿빛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할 광주시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아파트 22곳 160개 동을 포함해 모두 26곳 170개 동에 이르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똑같은 디자인의 사각형 '상남갑 아파트'이다. 더욱이 최근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너도나도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높이로 고층 주거 시설(아파트+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소 또한 도시 관문과 무등산, 광주천 주변은 물론 도심 상업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초 재검토를 결정했던 46층 짜리 건축물이 다시 건축위원회에 상정

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23·26번지 일원에 지어질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의 2개 건축물(아파트 724세대, 오피스텔 152호)은 당초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시가 건축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할 뿐 '문화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다. 광주시 또한 상업지역 내 용적률 조정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며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7기 광주시는 말로만 '광주다움'을 강조할 게 아니라 업계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광주가 고층 아파트로 뒤덮이지 않도록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도시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 끝내 해 넘기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나도록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역사적 진실 규명이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당 몫의 위원 추천을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광주를 찾아 5·18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를 둘러싼 당내 이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한국당은 위원 추천에 여전히 녹장을 부려 '직무 유기' '시한 끌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하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은 일찌감치 추천을 마쳤다. 삼심위원 1명과 조사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한국당은 뒤늦게 당내 공모 절차를 걸쳐 최근 13명의 예비 후보를 선정한 뒤 압축 과정을 거쳐 3명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다시 차관급인 삼심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월 임시국회에 각종 현안들이 얽혀 있어 지도부가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연내 조사위원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5·18 진상조사위는 집단 발표 책임자와 경위, 계급군의 헬기 사격, 계급군이 자행한 성폭력 등을 규명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38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의혹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다. 한국당이 5·18 진상 규명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연내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접했다. JTBC 프로그램 '차이 나는 클래스'로 이날 강연을 맡은 강사는 '낭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였다. 내가 막 채널을 돌렸을 땐 양 교수가 낸 퀴즈의 답을 확인하는 중이었고, 화면엔 클립트의 '키스'와 몽크의 '절규' 그리고 체 게바라의 초상화가 등장했다.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세 작품이 정답이었을까? 퀴즈 문제는 '영미권 대학생 기숙사에 가장 많이 걸린 그림 배스트 3'이었다. '키스'는 사랑에 대한 판타지, '절규'는

사르트르가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극찬했던 체 게바라.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네 자유와 권리는 딱 네가 저항한 만큼 주어진다.' 이 같은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아마도 배례모를 쓴 초상화 혹은 시가를 들고 있는 그의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 두거나, 마음 속 언단기에 한 번쯤 담아 놓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가까이 곁에 두고 보는 그림이나 사진이 때론 작은 위로를 주거나, 지나간 시절을 추억하게 해 줄 때가 있다. 그것은 꼭 유

곁에 두고 보는 그림

시함과 미래에 대한 공포, '체 게바라 초상화'는 저항의 상징이라는 양 교수의 해석이 이어졌다.

"나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병약함과 정신병이었다"고 술회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던 몽크의 대표작이 바로 '절규'(1893)다. 그는 내면의 고통을 그린 이 작품에 애착을 가져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50점 가까이 그렸다고 한다. 올해 서거 100주기를 맞은 클립트의 '키스'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명 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그려준 소박한 그림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일 수도 있다. 내 회사 책상엔 나라 요시토모의 그림엽서 한 장을 붙여 두었는데 일마다 잠시 고개를 들 때면 빙긋이 웃음이 나온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지만, 책상 앞에 '나만의 작품' 하나쯤 걸어 두는 건 어떨까. 난 벌써 '말괄량이 삤삤'을 새로운 친구로 선택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율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